

폭력의 재귀적 운동에 대한 징후적 독해 - 〈소년심판〉, 〈지금 우리 학교는〉, 〈D.P.〉를 중심으로

안승범*

1. 서론
2. '순환', '전염'으로서 폭력: 국가장치의 다원적 작동
3. 이데올로기의 역능과 폭력의 성격 분석
 - 3-1. 사유하지 않는 법정과 폭력의 재귀성: 〈소년심판〉
 - 3-2. 모순적 인준 체계로서 교육환경과 폭력의 전염성: 〈지금 우리 학교는〉
 - 3-3. 구속적 규제틀로서 병영과 폭력의 순환성: 〈D.P.〉
4.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현실 제도와 문화적 특징을 보여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를 '사회 구조적 폭력의 발현'이라는 관점에서 읽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 세 작품 속 주요 인물들은 폭력에 관한 극단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청소년기, 청년기를 보내고 있다. 폭력적 환경을 가능케 하는 은밀한 이데올로기는 알튀세르가 논한 국가장치의 역능과 작동의 관점에서 논할 수 있다. 소재와 상황이 모두 다르지만, 주요 인물들이 경험하는 폭력은 사회적 상상력으로 풀어내야 할 '역학 문제'를 환기시킨다.

먼저 〈소년심판〉은 억압적 국가 장치이면서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이기도 한 법이,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실패한 상황을 묘사한다. 기성세대가 공유해온 지배 이데올로기의 통로로서 소년법의 틈새를 적

*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확하게 보 여주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소년범들을 통해 감지되는 폭력의 재귀성은 ‘사유하는 사법’의 필요성을 강변한다. 〈지금 우리 학교는〉에 등장하는 ‘요나스 바이러스’는 자기 안녕을 추구하는 기성 사회가 학교 폭력을 방관한 자리에서 발생한다. 그리고는 계층화된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 서로를 착취해온 학생들 사이로 삼시간에 퍼져나간다. ‘살아 남은 아이들’과 ‘절비’는 폭력의 전염성을 방조하는 사회 시스템을 고발하는 동시에 기성세대의 규율화의 의지를 고발한다. 마지막으로 〈D.P.〉는 ‘군탈체포조’의 임무 수행 과정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는데, 이는 예외성의 표지가 나타나면 합의된 폭력으로 억압하는 군대의 규율체제를 적확하게 보여준다. 〈D.P.〉는 군대라는 억압적 국가 장치 내부에 자리한 폭력의 순환성을 보여주면서 수용자로 하여금 선명한 입장을 요구한다.

(주제어: 〈소년심판〉, 〈지금 우리 학교는〉, 〈D.P.〉, 억압적 국가 장치,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 루이 알튀세르, 폭력, 폭력의 순환성, 폭력의 전염성)

1. 서론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스토리콘텐츠의 영향력 증대는 TV 드라마, 영화와 같은 영상콘텐츠 산업 생태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키며 능동적인 코드 커터족(code cutters)을 양산하고 있다. 초국적 인터넷 서비스에 기반한 넷플릭스의 배급 체계는 특정 정부의 규제력 내에서 형성되어온 콘텐츠 시장, 미디어 제도, 향유 방식에 깃든 문화적 정체성에 균열을 내고 있다. 그런데 넷플릭스조차도 서비스 제공의 범위와 콘텐츠 전달 구조, 확산·공유의 양상 면에서만 ‘글로벌’일 뿐, 라이선싱 모델 측면에

서는 국가적 특성을 완전히 깨뜨리지 못했다.¹⁾ 더 나아가 시공간적으로 압축된 ‘글로벌’ 시청 문화가 출현했지만, 그 자체로 스토리콘텐츠의 서사적·이데올로기적 심층에 대한 비평의 ‘글로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OTT를 통해 서비스된 콘텐츠를 두고 본격 비평의 글로벌한 무대가 열린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사후적으로 보면, 몇 가지 상황적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해당 스토리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압도적 흥행을 지속하면서 국적이 다른 수용자들로부터 문화번역의 필요성이 점증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인상비평에 기반한 수용자의 담론장이 초국적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분석과 해석, 가치 판단에 관한 더 면밀하고 전문적인 견해가 논쟁적으로 부각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것처럼 기획과 창작 과정에서 텍스트의 심층에 기입된 국가적 맥락은 ‘글로벌(global)’ 비평의 필요를 견인하고 있다. 초국적 소통체계를 갖춘 OTT 서비스의 범람이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갖춘 훈련된 수용자로서 비평가의 역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2022년 4월 현재, 한국의 현실 제도와 문화적 특징을 실감 있게 보여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를 ‘사회 구조적 폭력의 발현’의 관점에서 징후적으로 읽고자 한다. 연구대상으로 삼은 〈소년심판〉, 〈지금 우리 학교는〉, 〈D.P.〉는 초국적 무대에서 흥행한 것은 물론, 국경 바깥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비평장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 작품은 전혀 다른 장르, 대별적인 소재로 만들어졌지만 한국의 10대, 20대를 대상으로 한 사적 폭력의 사회적 의미를 환기시킨다. 궁극적으로는 각종 폭력 사건들이 한국 사회의 구조적 이데올로기와 점착되어

1) 라몬 로바토, 『넷플릭스 세계화의 비밀』, 안세라 역, 유엑스리뷰, 2020, 92쪽.

있다는 상상을 자극한다. 이 글이 ‘징후적’ 독해를 시도한다는 의미는, 세 작품이 다루는 폭력 사태의 발생 원인을 그 배경에 은폐된 구조적 모순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과 같다.

이들 작품의 작가들 역시 이데올로기에 의해 호명되고 구성된 주체다. 따라서 텍스트의 틈새를 파고들면, 미발화된 사회적 문제의식이 놓여 있을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세 작품 속 인물들은 한국 사회의 특수한 현실에 대한 반향을 보여주는 바, 법원과 고등학교,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제도와 규칙, 관습의 모순을 드러낸다. 이데올로기의 작동에 주목해 볼 때, 그들은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의무와 추구하는 이상에 복무하는 중 폭력을 경험한다. 주지하듯, 특정 이데올로기가 사회적 무의식이 되고 나면, 구성원들은 이데올로기가 파생한 가시적인 목적에 따라 수단을 정당화하게 된다.²⁾ 그들은 가해와 피해가 교차하는 자리,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 전환되는 자리에서 한국 사회의 문제적 국면을 징후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본 연구는 텍스트에 직간접적으로 드러난 국가 장치들의 체계와 그것의 작동 방식 안에 담긴 사회적 기율을 훑아보고자 한다. 특히 “이데올로기적 폭력의 진정한 수수께끼는 심리 문제가 아니라 역학 문제”³⁾라는 것에 주목하여 한국 사회의 중층화된 이데올로기가 인물과 인물 관계망을 따라 부정적으로 표출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더 구체적으로 첨언하면, 〈소년심판〉, 〈지금 우리 학교는〉, 〈D.P.〉에서 한국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부정적으로 표출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폭력’이다. 그 때문에 이 글이 시도하는 징후적 독해의 입구는 선명하게 묘사된 폭력 사건들이다. 세 작품 속 주요 인물들은 폭력에 관한 극단적

2) 스티븐 핑커,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김명남 역, 사이언스북스, 2014, 943쪽.

3) 스티븐 핑커,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김명남 역, 사이언스북스, 2014, 943쪽.

인 환경에 노출되어 청소년기, 청년기를 보내고 있다. 폭력적 환경을 가능케 하는 은밀한 이데올로기는 알튀세르(Louis Althusser)가 주목한 국가 장치 작동의 관점에서 논할 수 있다.⁴⁾ 소재와 상황이 모두 다르지만, 주요 인물들이 경험하는 폭력은 사회적 상상력으로 풀어내야 할 ‘역학 문제’를 환기시킨다.

세 작품 속 폭력은 사회적 상상력으로 점검해야 할 한국사회의 특수한 환경을 고발한다. 작품 속 폭력은 시공간적으로 각기 다른 발화점을 갖고, 전염·순환을 통해 폭력이 점증하는 차별화된 질서를 보여준다. 예컨대 〈소년심판〉 속 소년범들은 가정과 학교의 훈육 체계 바깥으로 밀려난 후, 법률적 이데올로기의 작동 체계 틈새에서 교정과 교화의 가능성을 상실해간다. 〈지금 우리 학교는〉 속 주동인물군은 입시제도의 원심력에 따른 경쟁 문화 속에 포박되어 있으며, 이는 기성 사회가 규율하는 억압적 시스템의 힘에 영향받는다. 〈D.P.〉에 등장하는 탈영병들 중 일부는 한국 사회 안에 잔존하는 병영문화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실험 도구처럼 보인다. 세 작품 속 인물들을 맥락적으로 상상해보면, 〈소년심판〉 초반에 살인사건 공범자로 등장하는 만 13세의 백성우가 작품 속 현실을 그대로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고등학교 2학년으로 나오는 윤귀남과 같은 인물이 된 후, 〈D.P.〉의 황장수 병장과 같은 캐릭터가 될 수도 있다. 그 연장선에서 보면, 10대, 20대의 사회화에 책임이 있는 법원과 학교, 군대가 이들 작품에서만큼은 폭력을 내재한 시스템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 시스템의 부정적 작동과정에 유념하면서 세 작품에 드러난 폭력의 순환성과

4) 본고의 이론적 배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글인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는 복수의 단행본에 엮여 번역되어 있는데, 이진수 번역본(『레닌과 철학』)과 김응권 번역본(『재생산에 대하여』)을 상호참조하여 인용했음을 밝힌다.

전염성⁵⁾의 실체를 파악할 것이다.

요컨대 본고는 초국적 무대에서 글로벌 스토리콘텐츠로 각광받은 〈소년심판〉, 〈지금 우리 학교는〉, 〈D.P.〉를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텍스트로 재해석하고자 한다.⁶⁾ 주요 인물들이 맞닥뜨린 폭력의 경험을 국가 장치들이 규제하는 이데올로기의 효과와 연관지어 파악할 것이다. 충분히 언급 가능한 다른 학술적 관점을 열어놓되, 논지의 집중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앞서 제시한 논점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2. ‘순환’, ‘전염’으로서 폭력: 국가장치의 다원적 작동

로제 다둔(Roger Dadoun)은 『창세기』의 주요 장면을 설명하며 폭력이 인간 사회에 항존할 수밖에 없는 근본 속성이라는 사실을 밝힌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선악과’를 둘러싼 금기를 위반하고 에덴으로부터 아

5) 르네 지라르는 모방 경쟁이 야기하는 원초적인 폭력을 통해 인간사회를 설명한다. 모방의 번식을 통해 나타나는 폭력이 결국 나선형으로 증폭되어가는 원리는 폭력의 전염성과 순환성에 대한 해석을 포함한다. 한병철, 『폭력의 위상학』, 김태환 역, 김영사, 2020, 24쪽.

6) 본 논문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에 실은 저자의 줄문들을 참고하되 학술적 방법론을 재구축한 후 논지를 수정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기존 글은 아래 링크 참고. 안승범, 〈안승범의 문화톡톡폭력이 스스로 살아가는 풍경—〈D.P.〉론〉, 『르몽드디플로마티크』, 2022.2.21.

(<https://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dxno=15442>, 최종검색일: 2022.4.27.)

안승범, 〈안승범의 문화톡톡사유하지 않는 사법에 대한 질문—〈소년심판〉론〉, 『르몽드디플로마티크』, 2022.4.18.

(<http://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dxno=15628>, 최종검색일: 2022.4.27.)

안승범, 〈안승범의 문화톡톡절비는 아직 옥상에 있다—〈지금 우리 학교는〉〉, 『르몽드디플로마티크』, 2022.3.21.

(<http://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dxno=15528>, 최종검색일: 2022.4.27.)

담과 하와가 내쫓김을 당하는 장면에도 신과 인간 사이에 오간 폭력의 다른 양태가 담겨 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더욱 가시적이고 명징하게 폭력적 존재로서 인간을 증언한다고 말한다. ‘창세기’ 1장 28절에 등장하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신의 문화 명령(cultural mandate)도 인간이 수행해온 폭력의 한 성격을 암시한다.⁷⁾ 인간이 본질적으로 호모 비올런스(Homo Violence), 곧 폭력적 존재라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인간에게 폭력은 본질적인 능력이자 존재론적 숙명이다.⁸⁾ 폭력이 인간의 뇌 안에 본성의 하나로 프로그래밍되어 있다는 견해도 그와 맥을 같이 한다.

반면 스티븐 핑커(Steven Pinker)는 인간과 폭력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다른 차원의 주장을 펼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내면에 공격성을 지향하는 힘이 존재한다는 ‘폭력의 내적 압력 이론’은 ‘순수한 악의 신화(myth of pure evil)⁹⁾에 의존한 과잉 해석의 산물일 수 있다. 폭력을 인간 안에 내재한 본래적 충동¹⁰⁾과 동일시하고 나면, 폭력을 야기하는 환경적 유발 기제, 내부적 논리, 신경 생물학적 바탕, 사회적 성격을 갖는 서로 다른 심리 체계들¹¹⁾은 간과되기 마련이다. 더 나아가 핑커는 인간이 개인적·집단적 폭력을 감소해온 역사를 논증하며, 인류를 협동과 평

7) 로제 다둔, 『폭력』, 최윤주 역, 동문선, 2006, 22쪽.

8) 로제 다둔, 『폭력』, 최윤주 역, 동문선, 2006, 12-13쪽.

9) 스티븐 핑커,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김명남 역, 사이언스북스, 2014, 841쪽.

10) 프로이트도 인간이 처음부터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선천적 본능, 곧 타나토스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는 유기체적 인간이 자신의 본래 자리로 되돌아가려는 파괴적 본능을 의미한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마조히즘’도 생득적 발현태이며, 타인을 향한 폭력도 동일시라는 심리 기제에 따른 본래적 충동의 방향 전환에 해당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프로이트는 타나토스와 에로스의 갈등과 타협으로 인간의 삶을 규정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자아와 이드』,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윤희기·박찬부 역, 열린책들, 2004, 383쪽.

11) 스티븐 핑커,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김명남 역, 사이언스북스, 2014, 21쪽.

화로 이끌어온 온화한 동기의 복합적인 작동에 관해 해설한다.

다툼의 관념적 성찰을 따르든, 핑커의 실증적 논증을 따르든 인간은 ‘폭력을 다뤄야만 하는 존재’다. 그런데 폭력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문제는 개인의 의지를 초과하는 임무가 될 때가 많다. 평소 자각하기 힘든 사회적·구조적 폭력의 메커니즘은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다. 그런 종류의 폭력은 공동체의 비전과 공공선으로 합리화되어 있는 이데올로기와 결속되어 있기 마련이며, ‘공동체의 항상성’과도 연동되어 있다. 개인의 우발적 폭력도 그것을 다루는 공동체의 시선과 태도, 입장에 따라 ‘공동체의 항상성’ 논리 아래에서 다뤄질 수 있다. 이는 폭력 현상의 동역학적 특질로서 ‘전염성’과 ‘순환성’을 개인의 자질 문제로 규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된다.

공동체의 이데올로기와 결속된 구조적 폭력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ideological state apparatus)’에 관한 논의는 매우 유효한 논점을 제공한다. 먼저 이데올로기는 개인과 개인의 실제 존재 조건 사이의 가상적 관계를 표현한다.¹²⁾ 그런데 이데올로기는 의식을 거치지 않은 채, 대다수 인간들에게 부과된다.¹³⁾ 알튀세르에 따르면 이데올로기는 물리적 실체를 갖는 국가 장치들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구조화될 수 있으며, 개인의 선택과 실천 배후에서 영향력을 과시한다. 바꿔 말하면 “이데올로기는 구체적인 이데올로기 장치 내에 존재하여 구체적 의례의 지배를 받는 구체적 실행을 규정하며 이러한 실행들은 자신의 믿음에 따라 전적으로 의식 속에서 행동하는 주체의 행동 속에 존재한다.”¹⁴⁾

12) 루이 알튀세르,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 『레닌과 철학』, 이진수 역, 백의, 1997, 156쪽.

13) 루이 알튀세르, 『맑스를 위하여』, 고길환·이화숙 역, 백의, 1990, 266쪽.

14) 루이 알튀세르,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 『레닌과 철학』, 이진수 역,

알튀세르는 국가적 권력의 형식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강제적 압력을 행사하는 공적 실체인 ‘억압적 국가 장치(repressive state apparatus)’와 다양한 가치를 주입하며 사적 영역에 존재하는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가 바로 그것이다. ‘억압적 국가 장치’에는 정부, 군대, 경찰, 법원, 감옥 등이 속하는데 이들은 억압을 통해 지배적으로 작동하고 부수적으로만 이데올로기를 통해 기능한다. 한편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는 교회 등 종교기관을 둘러싼 체제, 학교를 통해 확인 가능한 교육 관련 제도, 법의 작동과 해석에 관한 관습, 다른 가치로 경쟁하는 정당들과 정치 제도, TV와 언론 등을 둘러싼 정보 전달 환경 등을 의미한다. 양자는 ‘억압’과 ‘이데올로기’를 ‘지배적/부수적’으로 작동시키면서 이중적 ‘기능 작용’을 하며¹⁵⁾ 기성 사회의 질서를 재생산한다.

여기서의 이중적 ‘기능 작용’은 1970년대 이후 알튀세르가 가장 중요하게 다룬 개념 중 하나인 ‘재생산(reproduction)’¹⁶⁾을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된다. 그에 따르면 사회구성체는 생산의 조건들을 재생산하면서 사회의 권력관계와 지배적인 구조를 유지해가는데, 이에 대한 심층적 통찰을 위해서는 국가 장치의 유기적 작동을 살펴야 한다. 알튀세르의 논리가 비약하는 지점은, 국가 장치들의 작동에 대한 합리적 논증을 혁명 수행에 대한 이상으로 연결시키는 대목이다. 실제로 알튀세르는 부르주아 국가 장치를 파괴한 후 프롤레타리아 국가 장치로 대체해야 한다는

백의, 1997, 163쪽.

15) 루이 알튀세르,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 『재생산에 대하여』, 김용권 역, 동문선, 2007, 364-367쪽.

16) 이때의 재생산은 첫째, 자본 축적 과정의 유지, 둘째, 계급 관계의 고착화로서 임금 노동자를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 셋째, 소비 과정을 규제하면서 노동자 양산 메커니즘을 유지하는 것, 넷째, 노동 조건을 새로운 세대가 재전유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노태명,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론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현대사상』 제24호, 대구대학교 현대사상연구소, 2020, 77쪽에서 수정하여 인용.

시선을 드러낸 바 있다. 이것은 계급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국가권력 장악 논리의 핵심이다. 그리하여 국가 자체를 폐절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공산당원으로서의 의지를 밝힌다.¹⁷⁾ 그러나 그러한 비약적 이상론을 배제하고 보면, 합법적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억압적 국가 장치와 자발적 종속과 순응을 유도하는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에 대한 논의는 그 나름의 실체적 진실을 갖는다.

이를 토대로 <소년심판>, <지금 우리 학교는>, <D.P.>를 보면, 국가 장치들이 사회 내 다양한 심급 간의 위계적 결합으로 구조화된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서사무대는 그 복합적 전체¹⁸⁾로서 주인공들에게 압력을 행사한다. 것처럼 세 작품의 주제 의식과 연결되는 이데올로기는 법정(<소년심판>)과 고등학교(<지금 우리 학교는>), 군대(<D.P.>)를 등으로 구성된 사회구조 내에 내재하며, 해당 국가 장치의 실천 활동을 통해 작동한다. 이데올로기는 폭력에 연루된 주인공들을 주체로 호명하고, 이 과정에서 미래세대를 규율하는 관습적 체계의 음험한 실체가 드러난다. 일부 인물들은 폭력의 근원이 은폐되는 과정, 곧 해당 공동체의 관계적 통치 체제에 자각 없이 복무함으로써 이데올로기가 행하는 인정의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매개체¹⁹⁾가 되기도 한다.

세 작품 속 주 무대인 연화지방법원, 효산고등학교, 103 보병사단은 모두 현실적 근거들을 포용한 가상적 공간으로 네이밍되어 있다. 이들은 특정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의 작동을 실험하기 위해 고안된 곳으로, 한국 사회가 미래세대를 다루는 방식을 확인시키는 실험 장소다. 그곳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기성세대는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들에 대한

17) 김형효, 『구조주의: 사유체계와 사상』, 인간사랑, 2008, 621쪽.

18) 루이 알튀세르, 『맑스를 위하여』, 이종영 역, 백의, 1997, 243쪽.

19) 루이 알튀세르,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 『재생산에 대하여』, 김응권 역, 동문선, 2007, 396쪽.

헤게모니를 동시에 행사²⁰⁾할 수 있는 힘을 쥔 것처럼 묘사된다. 연화지 방법원, 효산고등학교, 103 보병사단은 은폐된 통치술이 의심받지 않고 미래세대를 규율하는 장소로, 한국 사회의 지배적 가치가 재생산되는 과정을 상상하게 한다. 이는 해외 넷플릭스 구독자들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한국 사회의 예외적인 맥락에 해당한다. 해외 팬들에게는 익숙한 장르물이자 성공한 글로벌 콘텐츠의 하나로 각기 수용될 수 있지만, 서사 배면에 잠재된 한국 사회의 특수성은 비평의 ‘글로벌’에 대한 성찰을 요청하는 것이다.

세 작품 속 미래세대에 속하는 인물들은 크고 작은 폭력 현장에 연루 되는데, 그곳에서 지배 이데올로기와 결속된 구조적 폭력의 ‘전염성(다른 대상과 자리로 옮김)’과 ‘순환성(같은 대상과 자리로 되돌아옴)’이 확인된다. ‘전염성’과 ‘순환성’을 ‘재귀성’이라는 개념 아래에 둔다면, 세 작품은 폭력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어 전염과 순환의 고리가 연쇄되는, 폭력의 재귀적 운동을 다룬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다음 장에서는 폭력의 역학 관계에 주목하면서 해당 공동체의 위기를 고조시켜온 기저의 이데올로기와 폭력을 내재한 시스템을 훑아볼 것이다.

3. 이데올로기의 역능과 폭력의 성격 분석

3-1. 사유하지 않는 법정과 폭력의 재귀성: 〈소년심판〉

〈소년심판〉은 소년법에 대한 사법 시스템을 보여주면서 법을 다루는

20) 루이 알튀세르,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 『재생산에 대하여』, 김응권 역, 동문선, 2007, 368쪽.

이들의 태도와 입장을 성찰하게 한다. 메인 플롯을 이끌고 가는 심은석 판사의 서사적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그녀는 소년법에 의해 발생한 불법적 폭력을 국가가 승인한 합법적 강제(법)로 대응하는 최전선에서 더 나은 선택을 강요받는다. 발터 벤야민은 “폭력 비판이라는 과제는, 그 폭력이 법과 정의와 맺는 관계들을 서술하는 작업”²¹⁾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렇다면 심은석의 실천은 외관상 ‘소년심판’이라는 제목에 부합하지만, 실제로는 ‘폭력비판’이라는 내포를 갖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녀가 주관하는 수사과 재판은, 개별 폭력을 정확하게 비판하기 위해 법적 맥락을 따라 정의를 실현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심은석의 ‘폭력비판’은 소년법의 한계 안에 판사로서의 역량이 제한됨으로써 위기를 맞는다. 일단 그녀는 합법적 강제력이 행사되는 통로로만 존재하는 삶을 거부하는 인물이다. 다소 비현실적 설정이지만, 그녀는 수사 과정에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면서 ‘사법’ 영역 전반을 중횡무진한다. 그녀는 연화지방법원에 진출 온 직후부터 소년법의 배후와 그들의 표면적인 일상 ‘너머’를 보려고 한다. 그렇게 그녀는 폭력을 내재한 시스템을 응시하면서 명문화된 법의 구속력과 다투며 정의 실현에 관한 자율적 방안을 찾으려 한다.

심은석의 선택과 실천이 ‘폭력비판’으로서 한계를 갖는 이유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소년심판〉은 현행 소년법이 흉폭한 소년범들에게 과도한 운신의 폭을 허락한다고 본다. 〈소년심판〉에서 반복되는 “나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라는 심은석의 멘트는 소년법의 제약을 초과하여 죄질에 합당한 처벌을 원한다는 말과 같다. 그녀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처벌을 피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음으로써, 범죄

21) 발터 벤야민, 『폭력비판을 위하여』, 『발터 벤야민 선집 5』, 최성만 역, 도서출판 길, 2012, 79-80쪽.

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가는 소년들을 만난다. 실제로 한국의 소년법은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이들을 보호하고, 교화와 갱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만 19세 미만의 범죄자는 소년법에 근거하여 재판을 받는데, 만 10세 미만은 소년법상 처벌 대상조차 아니다. 만 10세부터 만 19세 미만의 소년 범죄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따로 관리된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 중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에 한해 성인들의 형사절차보다 훨씬 완화된 소년형사절차를 밟는다.

〈소년심판〉은 위악적인 10대들이 일으킨 사건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정적 질문들을 던진다. 만 10세에서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 기능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옳은가. 엄격한 형사 처벌 없이 소년범들에게 재활의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소년법의 원래 취지가 달성되고 있는가. 현재 소년범들은 죄의 중함을 따져 1호에서 10호에 해당하는 보호 처분만 받는다. 소년보호처분은 성인 범죄자들을 향한 잣대보다 훨씬 관대해서 우선 그 범죄가 전과로 기록되진 않는다.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10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2년 미만의 소년원 송치가 전부다. 그 때문에 소년 범죄의 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범죄 연령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처벌 가능 연령을 조정하고, 형량은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한 것도 사실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범죄 예방 차원에서라도 실효적인 공론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년심판〉은 이러한 근본적 쟁점을 심은석의 지난한 개인사에 기입한 후 수용자로 하여금 특정한 입장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보면, 〈소년심판〉의 극적 갈등은 억압적 국가 장치이자,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로서 법²²⁾이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실패하면서

22) 알튀세르는 법이 억압적 국가 장치와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의 체계에 동시에 속한다고 말한다. 루이 알튀세르,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 『재생산에

발생한다. 판사들은 사회의 지배 가치를 수호하는 엘리트이자, 미래세대를 규율하는 기성세대의 표상이다. 그들은 명문화된 법의 '차가운 적용'을 통해 한국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유지·강화하려 한다. 물론 〈소년심판〉 속 판사들이 소년 범죄에 대한 판단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균질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소년법에 대한 연민과 자애로움을 실천하는 차태주, 정치적 이해관계와 실리를 중시하는 강원중, 감정의 배제에 기반한 기계적 법 적용을 보이는 나근희는, 각기 다른 차원에서 심은석의 태도와 대비된다.

심은석은 소년범들에게 행하는 국가의 느슨한 '억압(법적 처벌)' 안에 기성 사회의 모순된 이데올로기가 착종되어 있음을 직시한다. 그녀는 합법적 강제로서 억압의 수위를 해석·결정하는 과정에서 법의 행간을 빠져나가는 진실을 찾으려 애쓴다. 심은석의 행동이 현실의 층위에서 실제로 적절한가를 논외로 둔다면, 그녀는 소년범을 둘러싼 왜곡된 환경의 개선, 피해자 회복에 관한 합리적 절차, 폭력 상황에 연루된 자들의 보호, 범죄 예방을 위한 냉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자문하는 인물이다. 이는 긍정적인 전망을 잃어가는 미래세대에게 '가능성의 미래'를 되돌려주기 위한 시도다. 그래서 그녀는 법망을 벗어나 계속되는 폭력의 재귀적 운동을 끊임없이 자문한다. 〈소년심판〉에 나타난 각종 소년 범죄들이 한국의 현실에서 실제 벌어진 사건²³⁾들을 직접 소환한다는 점에서 그녀의 '자문'은 한국 사회에 대한 반영론적 해석을 포함한다.

대하여』, 김응권 역, 동문선, 2007, 365쪽.

23) 1, 2화에 등장한 폭력사건은 '인천 동춘동 초등학교 유괴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다. 한편 5, 6화에 나오는 사건은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을, 7, 8화의 사건은 '대전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 추돌사고'를, 9, 10화의 사건은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에 기반하여 상상력으로 재구성된 것이다.

정당한 목적들의 체계로서, 곧 모든 의심을 불식시키는 안정된 체계를 가진 폭력이라도 그 체계가 내포할 수 있는 것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원칙이나 보편적 기준이 될 수 없다. 그 폭력이 사용된 사례들에 한해 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다. 폭력 일반이 원칙으로서, 심지어 스스로 정당한 목적들을 위한 수단으로서, 윤리적이냐는 물음은 여전히 열린 채로 있는 셈이다.²⁴⁾

발터 벤야민의 위 인용문을 수용하면, 폭력(억압)을 집행할 수 있는 합법적 원칙으로서 법, 보편적 기준으로서 법을 절대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이 윤리적 실천으로 집행될 수 있을 때에만 법의 목적과 체계가 긍정될 수 있다. 이는 심은석의 판사로서의 태도를 설명하는 데 일정한 참조점을 제시한다. 심은석은 더 큰 범죄자로 자라나는 소년들을 제어하지 못하는 기성 사회에 반성을 촉구하는 판결을 계속해 왔다. 일차적으로는 소년법에 대한 응징이 두드러지는 판결이지만, 그들에게 폭력을 대물려 준 부모들, 곧 기성세대를 향한 일갈을 읽어야 한다. 예컨대 아버지로부터 신체적 폭력과 경제적 착취를 당해온 서유리는 가정폭력의 전염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런데 서유리에 관한 사건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밝혀지는 정보에 따르면, 그녀의 아버지도 할아버지의 일방적인 폭력을 감당하며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나온다. 이는 폭력의 순환성, 곧 아버지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폭력의 복잡한 관성을 보여준다. 소년법들의 포주로 등장하는 최영나 역시 가정사 안에 학대의 흔적이 역력하다.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친어머니는 재가를 위해 영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연락을 끊는다. 급기야 영나는 새아버지에게 폭행까지 당한다. 이처럼 소

24) 가독성 제고를 위해 수정 인용되었음을 밝힌다. 발터 벤야민, 『폭력비판에 위하여』, 『발터 벤야민 선집 5』, 최성만 역, 도서출판 길, 2012, 80쪽.

년범으로 등장한 십수 명의 아이들 중 절대다수는 보호와 양육을 망기한 부모,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서슴지 않는 어른들에 의해 절망에 갇힌 이들이다. 그렇게 보면, 심은석의 판결은 그 같은 폭력의 재귀적 운동의 고리를 파헤치는 데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소년심판〉의 법정은 부모가 해내지 못한 훈육의 기능 중 일부를 국가가 대신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심은석의 관점에서 보면, 사유하지 않는 사법 체계 내에서 폭력의 전염성과 순환성은 끊어질 수 없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법정으로 되돌아오는 소년범으로 인해, 폭력의 재귀적 속성은 오히려 확산·강화된다. 〈소년심판〉의 서사적 트리거 포인트(trigger point)²⁵⁾는 9화에 삽입된다. 영민한 수용자라면 이미 추측할 수 있었지만, 9화에 이르러서야 판사 이전에 한 아이의 어머니였던 심은석이 사유하지 않는 사법의 최대 피해자였음이 밝혀진다. 자연인으로서 심은석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극복할 수 없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영양 불균형과 수면 부족의 삶에 내던져진다. 그녀가 워커홀릭(workaholic)으로 살아가는 것도 방어진제의 발현처럼 보인다.

〈소년심판〉 중반부, 심은석은 황인준과 백도현, 곧 자신의 아들을 죽인 촉법소년을 5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된다. 그들은 만 10세 이전에 장난삼아 벽돌을 던져 심은석의 아들을 죽인 바 있다. 황인준이 범죄의 사슬을 끊지 못한 이유는, 이혼한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보다도 살인을 저지른 이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범행에 대한 반성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데 있다. 백도현 역시 새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어린 나이

25) 서사의 방향과 속도, 정서의 흐름에 급격한 변화가 야기되는 '변환점'을 의미한다. 안송범, 『〈스타워즈〉 오리지널 트릴로지의 빌런 활용 전략 연구: 시리즈 서사는 어떻게 연장되는가?』, 『인문콘텐츠』 제62호, 인문콘텐츠학회, 2021, 213쪽.

에 가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개인사의 불행보다도 교화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한 법정의 무능력 때문에 더욱 심각한 범죄자가 된 것으로 그려진다. 심은석이 그들을 다시 대면하게 된 건, 연화 집단 성폭행 사건 때문인데, 황인준의 경우 이미 과실치사, 특수폭행, 특수절도 등 처분 전력만 일곱 번으로 나온다. 백도현은 촉법소년의 우두머리로 폭력적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극단적인 괴물로 등장한다. 그는 조건 만남 사기, 강간, 불법 촬영물 제작 및 유통, 미성년자 협박 및 성매매 등 폭력이 스스로 진화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심은석은 그들의 최근 범죄를 놓고 주심 판사에서 배제되지만, 사적 피해자(죽은 아이의 어머니)로서 갖게 된 특수한 입장을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가 합리적으로 작동하는 데 투영한다. 폭력의 재귀적 운동을 막아내야 하는 책임적 주체의 최선을 보여준다. 그 결과 “감정”없는 판결²⁶⁾의 맹점을 깨달은 나근희에 의해 사유하는 사법의 가능성이 실현된다.²⁷⁾ 이 판결로 인해 험거운 소년법의 틈새에서 폭력의 재귀적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론화된다.

저에게는 법관으로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법정은 감정이 없다. 그래야지 어떤 편견도 없이 냉철한 처분을 내릴 테니까요. 그러나 너무 뒤늦게나마 이 소년 법정에서만큼은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깨달

26) <소년심판>에서 심은석의 상관인 소년형사합의부장으로 7화 말미 처음 등장한 나근희는 5년 전 심은석의 아들이 죽은 사건의 판결을 맡은 바 있다. 황인준과 백도현을 법정에서 다시 만나기까지 그녀는 “감정”없는 판결을 소신으로 실천해 왔는데, 그 말의 함의는 곧 사유하지 않는 사법의 문제성을 드러낸다.

27) 소년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온 나근희나 권력의 카르텔로 들어가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강원중은 소년법에 반영된 지배 이데올로기가 허술하게 작동하는 과정을 짐작 시키는 판사로 나온다. 강원중은 사후에 서사적·도덕적으로 구제의 기회를 받지만 가정에서도 폭력적인 아버지의 면모를 보여준 바 있다. 그는 기성세대의 훈육 방식과 이데올로기 내에 폭력의 전염성과 순환성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았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 때문에 상처를 입었을 많은 분들에게 이 한 마디를 대신하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른으로서.²⁸⁾

10화 말미에 나근희가 법정에서 읊은 위의 대사는 한마디로 법의 사과다. 그녀는 법의 근원적인 취지에 부합하는 공동체의 윤리 회복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 사안에 대한 ‘적법성’ 여부만을 기계적으로 따져 왔다. 법에 명시된 승인된 억압을 매개하면서 법정 속 언어를 “목적의 무조건성”으로 지켜내 왔다.²⁹⁾ 그러나 심은석의 지난 5년의 절망과 소년법을 대하는 태도를 통과한 이후, 나근희는 소년법의 불완전한 틈새를 인정한다. 폭력의 재귀적 운동에 휩쓸린 미래세대의 불행은 개인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일부 구성원의 선의³⁰⁾로 해결될 수 없다.

〈소년심판〉 엔딩신은 텍스트 바깥의 수용자를 향해 소년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다. 〈소년심판〉 1, 2화에 옛된 얼굴로 등장한 소년범 백성우가 이번에는 온몸에 그로테스크한 문신을 하고 얼굴 전체에 피어싱을 한 채 심은석의 법정에 다시 앉아 있다. 1, 2화에서 백성우는 만 8세 아이 살인사건에 이용당한 어린 소년이었다. 여자친구가 살인범으로 몰릴 것을 두려워해 혼자 죄를 뒤집어쓰려고 자수를 택한 소년이었다. 결국 그는 가벼운 처벌을 받고 갱생의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그는 교화되지 못했고, 범죄와 비행으로 얼룩진 긴 시간을 보낸 후 다시 법정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때 백성우의 눈빛에는 사유하지 않는 사법에 대한 질문, 곧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로서 소년법 체계의 허술함에 대한 지적이 담겨 있다고 할 것이다.

28) 제10화 48분 50초 이하.

29) 발터 벤야민, 『폭력비판을 위하여』, 『발터 벤야민 선집 5』, 최성만 역, 도서출판 길, 2012, 82-83쪽.

30) 〈소년심판〉 속 푸름청소년회복센터의 오선자 원장과 같은 인물은 이 사례에 해당한다.

3-2. 모순적 인준 체계로서 교육환경과 폭력의 전염성: <지금 우리 학교는>

어느 나라에서건, 의무교육 현장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호출과 그에 대한 응답이 가장 질서 있게 펼쳐지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고등학교는 법적 의무교육 과정에 속하진 않지만, 가장 치열한 사회화의 인준 절차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의 시대정신을 집약하는 ‘공정’, ‘정의’와 같은 단어는 사회 양극화에 대한 냉정한 판단에 기인한다. 그리고 서열과 계급으로 구조화된 사회는 대학 서열화를 비롯한 학벌주의 문화와도 그 뿌리가 닿아 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는 열띤 경쟁 분위기를 통해 계급 분화를 낳는 불평등 구조를 자연스럽게 정당화하는 공간이다. 대다수의 미래세대는 그러한 모순을 숨긴 사회 구조를 자연스럽게, 한편으론 예외 없이 내면화하게 된다.

지배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로서 중등교육 과정에서 ‘입시’는 절대적 관문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 결과 학생의 재능과 취향은 상당 부분 배제된 채, 서열에 따른 대학 진학이 장려되어 왔다. 입시제도에 최적화된 학업 능력을 갖춘 이들이 인정받는 풍토 속에서 맞춤형 과잉 학습과 전략적 과열 경쟁이 만연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똑같은 교복을 입고, 동일한 규격의 책상에 앉아서 동일한 선생님께서부터 수업을 받는 상황 자체를 기회의 균등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렇게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결속된 입시제도를 의심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은 경쟁의 자리에서 서로를 모방한다. 이 ‘모방 경향’은 바로 옆자리의 친구들에 의해 끊임없이 “촉발되거나 강화”³¹⁾된다. 이로써 한국의 청

31) 르네 지라르, 『폭력과 성스러움』, 김진식·박무호 역, 민음사, 2012, 221쪽.

소년들은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리는 성과 주체로서 양육된다. 그들 중 상당수는 친구와의 경쟁을 떠나 이미 자기 자신과 경쟁하며 스스로를 착취하는 상황³²⁾에 놓여 있다.

알튀세르는 노동력의 재생산이야말로 사회구성체의 양식과 틀을 유지하는 데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노동력의 재생산’은 사회에 통용되는 기본 지식과 교양, 바람직한 자질이나 태도, 질서 의식, 일반적인 사회성과 도덕성도 포함된다.³³⁾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유지·강화와 연결되어 있는 사회 시스템의 상층부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할 뿐, 사회의 양식과 제도 아래에 숨겨진 가치 질서를 의심하거나 거부할 수단을 갖기 어렵다. 입시 위주 고등학교 체제는 그렇게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로서의 위상을 연장해 왔다. 오랜 시간 문제시되었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는 입시제도는 “폭력 없이도 지배가 가능해지는” 메커니즘을 공고히 해왔다. 한병철은 “구조적 폭력은 엄격한 의미에서 폭력이 아니며, 차라리 지배 기술”이라고 말한다. 원시적인 “폭력적 지배”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은밀한 지배”를 가능케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렇다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생들은 “규범에 합당하게 행동”하면서 “지배관계를 긍정하고 존속”³⁴⁾시키는 작업에 (자기도 모르게) 동참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금 우리 학교는〉의 제목에서 ‘지금’이 말하는 것은 누적되어온 문제의 동시대성을 말한다. ‘우리’는 해결에 나서야 할 주체로 잠재적 수용자를 초청하는 의도라고 판단된다. 〈지금 우리 학교는〉은 익숙한 고

32) 한병철, 『피로사회』, 김태환 역, 문학과지성사, 2021, 121-123쪽.

33) 진태원, 『과잉 결정, 이데올로기, 마주침: 알튀세르와 변증법』, 『자음과 모음』 9호, 자음과 모음, 2010, 1045-1046쪽.

34) 한병철, 『폭력의 위상학』, 김태환 역, 김영사, 2020, 123쪽.

등학교 공간을 피가 튀고 살점이 뜯기는 좀비 아포칼립스의 현장으로 변환한다. 이는 미래세대를 모순적 사회구조 안으로 안전하게 편입시키는 입시제도와 고등학교 체제의 비이성적 잔혹성을 상기시킨다. 그래서 좀비로 가득 찬 효산고의 풍경은 한국 사회의 ‘상징권력(부르디외)’에 의해 분화된 체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시키는 ‘모방의 위기(르네 지라르)’가 가시화된 현장이다. 부르디외의 언어로 말하면, ‘입시’를 준비하는 한국의 고등학생들 대다수는 “지각된 차이의 체계와 구별적 특성의 체계”³⁵⁾들을 성공의 동력으로 수용하고 있다. 상이한 아비투스(habitus)에 의해 상상되는 ‘서열’과 ‘계급’의 배치도를 내면화하고 있는 것이다. 입시 환경은 “상징권력을 구성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의 동인이자, “상승지향적인 도전자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당위적 무대다. 그로부터 “구별에 대한 인정”³⁶⁾을 전제할 때 유지되는 한국 사회의 모순적 시스템이 견고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요나스 바이러스’는 모순적 지배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호 착취의 모습을 표상한다. 요나스 바이러스의 출현은 학폭 피해자인 자기 아들을 구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울분에서 비롯된다. 효산고 과학 교사 이병찬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학폭 피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 불합리한 교육환경과 일신상의 안위를 따지는 교장 등 기득권의 벽은 두터웠다.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이병찬은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기엔 다소 아까운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천재 과학자로 그려진다. 장르 관습에 부합하는 전형성을 가진 그는 한국 고등학교 환경이 낳은 프랑켄슈타인 이미지를

35) 삐에르 부르디외, 『구별짓기-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上』, 최종철 역, 새물결, 2006, 312-318쪽.

36) 삐에르 부르디외, 『구별짓기-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上』, 최종철 역, 새물결, 2006, 453-454쪽.

가진다. 그는 학교와 경찰을 비롯한 기성 사회의 시스템으로 아들을 구원할 수 없게 되자, 스스로 아들의 상황을 역전시키려 한다. 비밀스러운 실험을 통해 폭력 피해자인 아들이 가해자를 응징할 방안을 강구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요나스 바이러스’는 출발부터 폭력의 전염성을 적확하게 내포하는 동시에, 전염의 폭력성을 가시화하기 위한 서사적 도구가 된다.

그런데 “작은 폭력이라고 그냥 넘기면 결국 더 큰 폭력에 지배당하는 세상”³⁷⁾이 온다는 이병찬의 경고는 곧 효산고와 효산시 전체의 시스템을 향한다. <지금 우리 학교는> 초반부의 정보에 따르면, 주동인물군에 속하는 학생들은 학업 능력에 따른 서로에 대한 편견, 부모의 재력이나 주거 환경 등 경제 계급에 따른 미묘한 시선 차이, 대학을 갈 수 있는 예외적 수단의 확보 여부 등을 의식하고 있다. 이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교실 안 풍경을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그 외중에 기성 사회는 경쟁에 시달리는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극단적인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 단지 막지 못한 게 아니라 기구축된 사회 질서를 보존해야 한다는 목적에 따라 학생들의 희생을 ‘적극적으로’ 방관한다. 기성 사회의 부조리한 국면을 반사하는 인물들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국회의원은 사회적 지위에 부합하는 특권의식을 선택적으로 드러내며 자신의 힘과 권리를 필요에 따라 행사하려 한다. 군대 조직 내에서도 상관일수록, 학교 조직 안에서도 교장과 교감을 중심으로 사태를 축소하거나, 가장 효율적인 단기 처방을 강구하려 한다. 그리고 그 안엔 기득권을 보존하려는 욕망이 개입되어 있다.

이처럼 <지금 우리 학교는>은 팬데믹 이후 세계인이 경험 중인 감염과 전염의 공포를 서사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한국적’³⁸⁾인 학원물로서의

37) 제4화 31분 47초

성격을 분명히 한다. 특히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효산고 학생들은 ‘생존 자체로 고발과 위반, 저항의 플롯을 끌고 간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좀비가 된 친구들로부터 서로를 지켜내는 과정은, 교실 안까지 투입한 ‘차이의 체계’를 극복하고, ‘모방의 위기’를 벗어나는 과정으로 통한다. 르네 지라르(Rene Girard)는 원시사회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면서 폭력에 의해 피가 나타나면, 이 피는 어디든지 침투하여 무한정 퍼져나간다고 말한다. 피의 유동성은 폭력의 전염성을 보여주며, 불순한 피에 의한 공동체의 오염을 순화시킬 수 있는 것도 희생물의 순수한 피라고 말한다.³⁹⁾ 이는 효산고 학생들이 흘린 피의 성격에 직접적인 주석이 된다. 효산고로부터 퍼져가는 극단적 사태를 책임져야 할 재난본부, 군대, 방송 및 언론 등의 행태는 폭력을 뒤탈 없는 희생물에게로 돌리기 위한 선택과 실천의 과정일 수 있다. 이처럼 ‘살아남은 아이들’의 생존기는 불합리하고 폭력적인 시스템과의 대결 과정인지도 모른다. 그들의 진정한 적은 옛 그제까지 친구였던 좀비가 아니라, 더 음험하고 거대한 질서인 셈이다.

〈지금 우리 학교는〉이 국가 장치의 억압과 부조리한 이데올로기를 보여주는 동시에 ‘역학의 문제’를 드러낸다는 사실은 매우 분명하다. 특히 작품 후반부에 나타난 효산시에 대한 통제 방식을 생명정치(biopolitics)의 실천으로 읽을 때 그 실체는 더욱 명확해진다. 푸코(Michel Foucault)는 개인의 죽음을 스스로의 목적과 선택에 따른 결과로 은폐하면서 현대사회의 통제권력 메커니즘이 작동한다고 말한다.⁴⁰⁾ 한편 〈지금 우리 학교는〉은 좀비라는 극단적인 호모 사케르(homo sacer)를 향한 통치술을 통해 그러한 내막을 폭로한다. 요나스 바이러스가 퍼진 이후, 좀비들

38) 〈지금 우리 학교는〉에는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변곡점이 된 ‘세월호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을 우회적으로 자극하는 장면들도 존재한다.

39) 르네 지라르, 『폭력과 성스러움』, 김진식·박무호 역, 민음사, 2012, 54-55쪽.

40) 천선영, 『죽음을 살다: 우리시대 죽음의 의미와 담론』, 나남, 2012, 43쪽.

과 전염 여부가 불분명한 존재들로 가득 찬 효산시는 아감벤(Giorgio Agamben)이 말한 '주권 권력(sovereign power)'과 '벌거벗은 생명(bare life)' 사이의 점이지대를 떠올리게 한다. '좀비/절비⁴¹⁾/인간'이 뒤섞인 상황에서 주권 권력은 그들을 어떻게 배제시킬 것인가,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한다. 그러한 이중구속의 상황 속에서 효산시는 주권 권력의 통치술이 시연되는 가상의 공간이 된다. 주권 권력은 통제학, 인구학, 전염병학적 지식⁴²⁾을 규합해 선택적 배제를 행하는 자기 보존적 '통치'를 밀어붙인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효산고의 살아남은 아이들이 왜 구조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답은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미 좀비가 되었을 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만으로 배제된다. 주권적 결정에 따라 치치될 수밖에 없는 '살아있는 물질(biomass)'⁴³⁾, '발가벗은 생명'의 극단적인 사례로 격하되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는>에 나타난 폭력의 전염성은 주권 권력이 부리는 생명정치의 권능을 역설한다. 효산고는 미래세대를 지배 이데올로기에 종속시키는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을 언제든지 정치적·법률적 공동체에서 배제하여 자연적 존재로 분리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장소다.

그래서 '절비'의 상징적 함의는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기성세대의 규율화 의지에 의해 제물로 바쳐진 이들이면서, 그 희생대체(sacrifice substitution)의 폭력에서 살아남아 '가해/피해'의 성격을 한 몸에 지닌 그

41) 극중 '절반만 좀비'라는 뜻으로 쓰인다. 요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신체 상태에 변화가 생겼음에도 의식을 가진 이들을 일컫는다. 이병찬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요나스 바이러스가 인간의 의식을 학습한 결과를 보여준다.

42) 생명정치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학문 영역들의 출현과 통섭을 전제한다. 토마스 램케, 『생명정치란 무엇인가』, 심성보 역, 그린비, 2018, 20쪽.

43) 토마스 램케, 『생명정치란 무엇인가』, 심성보 역, 그린비, 2018, 95쪽.

로테스크한 존재다. 그들 중 최남라 캐릭터는 특기할 만하다. 그녀는 엄마의 '치맛바람' 속에 학급 반장이 되었고, 왜곡된 사회 구조가 자극하는 학업성적 1등이라는 주문에 순응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그녀는 존재 자체로 기성세대의 폭압적 규율체계와 미래세대를 향한 기대를 위반하며 저항의 가능성을 내보인다 '절비'가 되어 '인준-생존', '위반-배제'의 메커니즘 바깥을 상상하게 한다. 기성세대에게 버려진 생존 학생들이 효산고 옥상에 모여 모닥불을 피우며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다. 그 장면에서 학생들은 계급의 구별과 빈부 차별, 성적에 의한 우열이 사라진 정감적 공동체를 만들어낸다. 절비가 된 최남라는 그제야 그들 사이로 들어가 생존 학생들의 진정한 학급 반장이 된다. <지금 우리 학교는>의 엔딩신은 절비가 된 최남라를 중심으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될 살아남은 아이들이 새로운 실천을 해낼 것이란 사실이 암시된다. 그들은 시즌 2에서 "이것은 폭력의 시스템이다. 나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시스템 못 바뀐다"44) 라는 이병찬의 주장과 더욱 전면적으로 싸울 것이다.

3-3. 구속적 규제틀로서 병영과 폭력의 순환성: <D.P.>

<D.P.>가 해외에서도 오랜 시간 주목받았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진지한 수용을 위해서는, 예외적이고 특수한 안보 현실 속에서 엄격한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인 절대다수는 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사람을 가족 구성원으로 두고 있다. 그 체험은 <D.P.>의 서사무대에 작동하는 긴장성을 공유하는 데 핵심이 된다. 실제로 한반도는 20세기에 종식된 것으로 알려진 냉전 체제가 굴절되어 유지되고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휴전' 국면

44) 제4화 30분 40초.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 군대는 가장 높은 수준의 규율과 질서가 강요된다. 기본적으로 군대란 잘 조직화된 전쟁 수행 능력으로 평가받는 집단이며, 구성원들은 위협이 되는 적을 향해 일사분란한 폭력을 연습해야 한다. 징집된 병사들이 겪는 심리적 압박 중 하나는, 국가가 허락한 폭력을 자동반사적으로 해낼 수 있는 수준을 상시적으로 요구받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여느 나라의 상황과 비교하더라도, 한국 군대는 억압적 국가 장치 중에서도 매우 강력한 규제 시스템으로 존재한다. 거기에서는 계급과 명령에 의한 타율적 관계망이 개인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그와 관련된 메커니즘이 특별히 의심받지 않는다. ‘우리’에 대한 과도한 공감과 자긍심이 적극적으로 장려되며, 적에 대한 경계심은 순수한 애국심과 구별되지 않는다. 적으로부터 나를 지키려는 목적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 상호의존적이 되며, 그러한 환경 속에서는 군기의 유지를 위한 사사로운 폭력이 쉬이 용인된다. 그래서 <D.P.>에 대한 징후적 독해는 “중대한 변화가 없다면, 즉 처음부터 다시 사안의 일부를 다시 인지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일이 없다면 문제 제기 자체가 쉽지 않⁴⁵⁾은 군대 문화의 관성을 상기시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D.P.>는 군무이탈자 체포전담조, 곧 군탈체포조(Deserter Pursuit)를 중심으로 군대를 구성하는 계급화된 인물들 사이의 상상적 관계를 재구성한다. 이 ‘상상적 관계’, 곧 이데올로기의 작동 구조는 “이데올로기에 의한, 이데올로기 내의 실천 말고 다른 실천이란 없다⁴⁶⁾는 알튀세르의 명제를 가장 순수한 수준으로 보여준다.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강력한

45) 테리 이글턴, 『문화란 무엇인가』, 이강선 역, 문예출판사, 2011, 73쪽.

46) 루이 알튀세르,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 『레닌과 철학』, 이진수 역, 백의, 1990, 164쪽.

명령체계가 존재하고, 예외성의 표지가 나타나면 합의된 폭력으로 억압한다는 것이 이곳의 시스템이다. 탈영병을 잡는 군탈체포조의 상징적 지위는 그 시스템의 발현 방식을 집적으로 체현한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군간부로 등장하는 헌병대장 천용덕 중령, 서사 초반 부임해오는 임지섭 대위, 현장 경험이 가장 풍부한 것으로 보이는 박범구 중사에서부터 일반 병사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계급이 곧 태도이자 입장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힘의 차이가 만들어낸 질서, 곧 계급이 만든 대타적 지위 안에서 움직이며, 상대와의 관계 안에서 상급자일수록 자기 말과 행위를 당연하다는 듯 합리화한다. 특히 황장수 병장과 같은 캐릭터는, 내무반 내 역학 관계 내에서 자기 행동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하거나 가장할 수 있는 특권을 폭력적으로 행사한다. 그 때문에 <D.P.>의 주요 인물들 사이의 “진실은 그들 각자의 의도나 경험이 아니라, 대타자, 즉 의미 영역 전체”에 위치시켜 살펴야 한다. 그들 각자가 하는 것(행동)과 그들이 한다고 말하는 것(해석) 사이의 구조적 불화⁴⁷⁾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다.

<D.P.>를 주인공 안준호의 내면의 궤적을 따라 읽으면, 모험서사와 성장서사가 착종되는 경과를 발견할 수 있다. 그는 103사단 헌병대 군탈체포조에 투입된 첫날, 선임병의 회유로 유흥을 즐기다가 탈영병을 눈앞에서 놓치고 만다. 그 탈영병이 결국 자살하자 탈영병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선임병을 눕힌 후 주먹을 휘두르기까지 한다. 그 신(scene)에서 선임병의 얼굴이 자신의 얼굴로 바뀌면서 폭력이 초래한 현실에서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라는 이중적 상태에 갇히게 된다. 어린 시절, 폭력적인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트라우마는 그렇게 헤어날 수 없는 굴레로 되돌아온다. 실제로 안준호는

47) 테리 이글턴, 『문화란 무엇인가』, 이강선 역, 문예출판사, 2011, 76-77쪽.

복싱을 했느냐는 선임병 한호열의 질문에 “아빠한테 안 맞으려고 배웠 습니다.”⁴⁸⁾라고 답하고, 휴가 도중 아버지가 입원해있는 병원에 찾아가 서 “나중에 아빠 죽으면 진짜 크게 웃을 거예요”⁴⁹⁾라고 말하기도 한다. 폭력에 시달린 이의 내면에 잠재된 역방향의 폭력성, 곧 대물림되기 쉬 운 이 폭력 충동은 <D.P.>의 주제 의식을 소환하는 출발점이다. 폭력이 용인되는 군대를, 자의적으로 교체할 수 없는 아버지와 유비관계로 해석한다면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탈영병들은 안준호 자신의 다른 얼굴들 이 된다. 그들은 억압적 국가 장치로서 군법을 위반한 가해자이면서, 오랜 세월 불합리하게 대물림되어온 폭력적 군대 문화에 관해서는 피해자 가 된다.

그 때문에 <D.P.>의 탈영병들은 안준호에게, 또한 안준호에게 동일시 된 수용자에게 동정과 연민의 대상이 되곤 한다. 잠을 잘 때 코를 곤다는 이유로 집단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탈영한 최준목은 막차 시간에 종 점에 멈춰 선 지하철 안에서 발견된다. 잠에서 깬 그가 그는 자신을 에 워싼 군탈체포조에게 “이곳이 어디예요?”라고 묻자 “종점이에요.”라는 답 변이 되돌아온다. 그제야 그는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더 갈 데가 없네 요”⁵⁰⁾라고 대답한다. 여기서 ‘종점’, ‘막차’는 중의적 표현을 갖는다. 군대 내 사사로운 폭력이 계급 질서의 유지라는 명분 아래로 축소·은폐되면 서 그는 더 달아날 곳이 없는 시공간으로 떠밀린 것이다.

<D.P.> 에피소드에서 마지막 탈영병으로 나오는 조석봉은 ‘봉디(조석 봉=간디)’라는 별명이 붙은 선량한 캐릭터다. 그러나 그는 ‘내림구타’, ‘내리갈굼’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결국 비폭력 평화주의자, 체제

48) 제3화 4분 50초.

49) 제4화 6분.

50) 제2화 41분 20초.

순응자의 위치를 이탈한다. ‘내림구타’, ‘내리갈굼’은 타율적으로 엮인 계급 공동체 내에서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당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보상심리의 순환을 상기시킨다. 순환하는 폭력에 연루된 가해자, 방관자, 피해자들의 심리는 ‘밀그램 실험’의 논점을 통해 해명할 수 있다.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 결과, 권위를 가진 이가 공격적인 명령을 내리자 사람들은 의문을 품지 않고 피해자를 괴롭혔다. 타인에게 명백한 고통을 야기하는 지시라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더 대담하게 지시를 이행할 확률이 높아졌다.⁵¹⁾ 추측할 수 있듯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회 공동체 중에서 군대는, 계급에 따른 권위가 가장 강조되는 곳이다. 권위에 의한 통제 문화 속에서 권력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권력중독은 약자에 대한 공격과 그로부터 주어지는 쾌감에 붙들릴 때 위험해진다. 일사분란한 복종과 순응이 미덕인 공간에서 권력중독은 폭력의 순환성을 가속화 할 수 있다. 이는 황장수 병장의 조석봉 일병을 향한 끔찍한 폭력이 전통의 하나로, 인습의 일면으로 변질되어 일상화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준다.

조석봉은 극악한 폭력을 행사하던 황장수가 사과 없이 전역하자, 탈영 후 일상으로 돌아간 황장수를 붙잡아 온다. 조석봉이 황장수를 데리고 간 곳은, 103사단이 관리하는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방공호를 갖춘 군사작전 터널이다. ‘멸공’이라는 글씨가 박힌 이 터널은, 북한이 남침을 위해 판 땅굴을 감추고 있다는 점에서 폭력에 관한 역사적 공유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이곳은 103사단 병사들 간의 폭력이 방관자들의 침묵 속에 행사되는 곳이다. 그렇다면 <D.P.> 말미, ‘가해자/피해자’ 위치가 뒤바뀐 조석봉과 황장수가 그 터널의 어둠 속에 윤회될 때 은유적 독해의 가능성이 분명해진다. 우선적으로 그곳은 폭력의 계획(북한)과

51) 스티븐 핑커,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김명남 역, 사이언스북스, 2014, 960쪽.

그것을 더 강력한 폭력으로 갚아주려는 계획(남한)이 공존하는 곳으로 봐야 한다. 더 나아가 황장수와 조석봉의 상징적 자리바꿈을 통해, 일상의 무대에 존재하는 폭력의 순환성과 그것의 위력을 상기시킨다.

그 장소에서 조석봉은 황장수를 죽이는 대신, 스스로 자살을 한다. 이때의 자살이 부조리한 폭력 관계에 대한 합리적 종결점이 아니라는 점에서, 폭력의 순환성이 끊어질 것이란 전망은 불가능해진다. 이는 한국 군대가 가장 강한 수준의 국가적 억압 장치로 존재한다고 했을 때, 폭력으로 발현될 수 있는 다른 상상적 관계가 계속될 것이란 진단을 포함한다. 알튀세르도 폭력의 “구조와 기능 작용”과 연결된 이데올로기는 “비역사적”·“전(全)역사적”으로 불변할 수밖에 없다고 표현한 바 있다.⁵²⁾ 그럼에도 조석봉이 사라진 자리는 국가 안보라는 합목적적 비전 아래에서 축소·은폐·왜곡되어온 개인의 고통을 증언한다. 그러한 폭력 문화에 관한 생체험을 직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수용자들에게 윤리적 입장을 요구하는 질문이 된다. 여기서 ‘요청된 질문’은 가부장적 폭력의 트라우마를 떨치지 못한 안준호의 지연된 성장, 각 에피소드에 나타난 탈영병들의 불가능한 꿈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포함한다.

사족처럼 붙은 엔딩신은 ‘김일병 GP 총기 난사’ 사건의 전후를 떠올리게 한다. ‘가해(폭력)-방관(용인)’의 인습이 ‘피해(죽음)-망각(은폐)’의 비극을 견인하며, 폭력이 순환하는 메커니즘을 다시 성찰하게 한다. 직접적인 폭력의 수단을 합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군대는, 이후에도 ‘공인된 무력’ 사용을 위해 강도 높은 규율을 유지할 것이다. 이때의 규율은 계급에 따른 힘과 권한의 차등을 보장하고, ‘폭력을 다뤄야만 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부정적 그림자를 쉬이 자극할 것이다. 그렇게 발현된 그림

52) 루이 알튀세르,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 『재생산에 대하여』, 김응권 역, 동문선, 2007, 382-383쪽.

자는 사사로운 폭력을 근대 공동체의 비전과 공공선이라는 명분 아래로 은폐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가능한’ 연쇄작용은 <D.P.>가 주목한 근대 공동체의 비극적 항상성을 떠올리게 한다. 그렇게 보면 <소년심판>과 <지금 우리 학교는>보다 <D.P.>는 “권력과 폭력이 맺는 놀라운 친화력과 공조 관계”⁵³⁾를 더 진지하게 직시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소년심판>, <지금 우리 학교는>, <D.P.>가 동시대 한국의 현실 제도와 문화적 특징을 예각적으로 보여준 텍스트라는 점에 착안한 결과다. 특히 한국의 10대, 20대에 대한 사회적 인준 절차 안에 구조적 폭력의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들 작품 속 미래세대는 한국 사회 배면을 장악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영향 아래에서 폭력을 체화하고, 견디고, 저항하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국가 장치의 작동 체계와 불화하면서 사회적 상상력으로 풀어내야 할 폭력의 ‘역학 문제’를 내보인다. 그 내용의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년심판>은 억압적 국가 장치이면서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이기도 한 법이,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번번이 실패하고 있음을 증언한다. <소년심판>의 관점에 따르면 소년법은 소년범들의 교화와 갱생이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명문화된 법의 ‘차가운 적용’만으로는 폭력의 전염성과 순환성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소년심판>의 서사적 종착점에는 폭력의 재귀적 운동을 막지 못

53) 로제 다둔, 『폭력』, 최윤주 역, 동문선, 2006, 13쪽.

한 기성세대에 의해 ‘법의 사과’가 이뤄지는 장면이 배치되어 있다. 기성세대가 공유해온 지배 이데올로기의 한 통로로서 소년법의 틈새가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다. 이로써 소년법의 역능에 대한 믿음이 소년법들의 불행을 방조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구체화된다. 〈소년심판〉에 따르면 소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막연한 신념이나 그들을 둘러싼 일부 구성원의 선의 이전에 ‘사유하는 사법’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고등학교 현장은, 양극화, 서열화를 조장하는 한국 사회의 문제적 시스템이 은밀하게 작동하는 장소다. 대학 입시라는 관문을 앞두고 형성된 열띤 경쟁 분위기 속에서 그러한 구조적 모순은 쉬이 은폐된다. ‘요나스 바이러스’는 자기 안녕을 추구하는 기성사회가 학교 폭력을 방관한 자리에서 발생한다. 그리고는 구별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상승지향적인 도전자’가 되어 서로를 착취해온 학생들 사이로 삼시간에 퍼져나간다. 알튀세르의 관점을 따르면, 진화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교육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은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 중 하나다. 그렇다면 ‘살아남은 아이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과 그 배후의 폭력적인 사회 시스템과 사투를 벌이며, 그 ‘부조리함’을 고발한다고 할 수 있다. ‘절비’는 기성세대의 규율화 의지에 의해 탄생한 제물이면서, 그 일방적 폭력에서 살아남은 저항의 기포다.

마지막으로 〈D.P.〉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강력한 명령체계에 의해 움직이는 군대 내부의 시스템을 조명한다. 〈D.P.〉는 ‘군탈체포조’의 임무 수행 과정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는데, 이는 예외성의 표지가 나타나면 합의된 폭력으로 억압하는 군대의 규율체계를 적확하게 보여준다. 군대는 억압적 국가 장치 중에서도 계급에 따른 힘과 권한의 차등을 가장 선명하게 인정하는바, 〈D.P.〉는 사사로운 폭력을 방조하거나 축소시키며 존재하는 군대문화를 비판한다. 종결부에 등장하는 조석봉의 자

살은 폭력의 순환 고리를 스스로 단절하려는 시도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기도 하다.

이 글은 한국 사회의 제도적 현실을 포착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물을 대상으로, 그들을 관통하는 제재인 ‘폭력의 재귀적 운동’을 반영론적으로 해석한 결과물이다. 글로벌 OIT 플랫폼의 영향력과 해외 비평장의 한계 등을 충분히 조명하면서 글을 전개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후에도 한국 사회의 특수한 국면을 드러내면서 대중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작품들을 대상으로 텍스트의 심층에 기입된 국지적 맥락을 찾는 연구를 지속해나가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이재규·김남수 연출, 〈지금 우리 학교는〉, 넷플릭스, 2022.

한준희 연출, 〈D.P.〉, 넷플릭스, 2021.

홍종찬 연출, 〈소년심판〉, 넷플릭스, 2022.

2. 논문과 단행본

김형효, 『구조주의: 사유체계와 사상』, 인간사랑, 2008.

노태맹,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론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현대사상』 제24호, 대구대학교 현대사상연구소, 2020, 75-99쪽.

라몬 로바토, 『넷플릭스 세계화의 비밀』, 안세라 역, 유엑스리뷰, 2020.

로제 다둔, 『폭력』, 최윤주 역, 동문선, 2006.

루이 알튀세르, 『말스를 위하여』, 고길환·이화숙 역, 백의, 1990.

_____, 『레닌과 철학』, 이진수 역, 백의, 1997.

_____, 『재생산에 대하여』, 김웅권 역, 동문선, 2007.

르네 지라르, 『폭력과 성스러움』, 김진식·박무호 역, 민음사, 2012.

발터 벤야민, 『폭력비판을 위하여』, 『발터 벤야민 선집 5』, 최성만 역, 도서출판 길, 2012.

베에르 부르디외, 『구별짓기—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上』, 최종철 역, 새물결, 2006.

스티븐 핑커,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김명남 역, 사이언스북스, 2014.

안승범, 『〈스타워즈〉 오리지널 트릴로지의 빌런 활용 전략 연구: 시리즈 서사는 어떻게 연장되는가?』, 『인문콘텐츠』 제62호, 인문콘텐츠학회, 2021, 199-221쪽.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윤희기·박찬부 역, 열린책들, 2004.

진태원, 『과잉 결정, 이데올로기, 마주침: 알튀세르와 변증법』, 『자음과 모음』 9호, 자음과 모음, 2010, 1,034-1,069쪽.

천선영, 『죽음을 살다: 우리시대 죽음의 의미와 담론』, 나남, 2012.

테리 이글턴, 『문화란 무엇인가』, 이강선 역, 문예출판사, 2011.

토마스 램케, 『생명정치란 무엇인가』, 심성보 역, 그린비, 2018.

한병철, 『폭력의 위상학』, 김태환 역, 김영사, 2020.

_____, 『피로사회』, 김태환 역, 문학과지성사, 2021.

3. 기타자료

안승범, <[안승범의 문화톡톡]사유하지 않는 사법에 대한 질문-〈소년심판〉론>, 『르몽드디플로마티크』, 2022.4.18.

(<http://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628>)

_____, <[안승범의 문화톡톡]절비는 아직 옥상에 있다-〈지금 우리 학교는〉>, 『르몽드디플로마티크』, 2022.3.21.

(<http://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528>)

_____, <[안승범의 문화톡톡]폭력이 스스로 살아가는 풍경-〈D.P.〉론>, 『르몽드디플로마티크』, 2022.2.21.

(<https://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42>)

Abstract

Symptomatic Reading on Recursive Movement of Violence

– With a Focus on *Juvenile Justice*, *All of Us Are Dead*, and *D.P.*

Ahn, Soong-Buem(Kyung He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mptomatically read the Netflix original series' that depict the system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 realistical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mergence of social structural violence.' The central characters of the three works spend their adolescence and youth in environments rife with extreme violence. The covert ideology that enables a violent environment can be discussed in terms of the power and operation of state apparatuses discussed by Althusser. Although the subject matter and circumstances vary, the violence experienced by the central characters evokes the 'mechanics problem' that must be resolved by social imagination.

To begin, *Juvenile Justice* depicts a situation in which the law, which functions as both a repressive and an ideological state apparatus, fails to accomplish its stated purpose. It accurately depicts the holes in juvenile law as a conduit for the dominant ideology shared by the older generation. As a result, the recursive nature of violence experienced through juvenile offenders underscores the necessity of 'speculative justice.' The 'Jonas Virus,' which emerges in *All of Us Are Dead*, occurs when an established society prioritizes its own survival while neglecting school violence. The virus then spreads rapidly among students who have exploited one another in order to establish themselves in a stratified society. Both the surviving children and Cheolbi denounce the social system that facilitates the spread of violence and, at the same time, denounce the older generation's propensity to discipline. Finally, *D.P.* focuses on the process of carrying out the mission of 'deserter pursuit,' which accurately depicts the military discipline system's oppressive use of consensual violence in response to the appearance of a sign of exceptionality. *D.P.* depicts the cycle of violence within the repressive state apparatus that is the military and calls on the prisoners to take a stand.

(Keywords: Juvenile Justice, All of Us are Dead, D.P., repressive state apparatus, ideological state apparatus, Louis Althusser, Violence, Circulation of violence, Contagiousness of violence)

논문투고일 2022년 4월 30일

논문심사일 2022년 6월 7일

수정완료일 2022년 6월 12일

게재확정일 2022년 6월 15일